

#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 다른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는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가?

전학석(연변대)

## 1.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의 국어표준어 악센트에 대한 서술

중국에서 자체로 국어문법서를 편찬하여 출판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부터이다. 물론 1972년 이전에 문법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72년 이전의 문법서들은 대체로 조선에서 출판한 문법서들을 그대로 재출판한 것이거나 연변대학에서 교재로 편찬한 것들이다.

1972년부터 중국에서 출판된 국어문법서는 다음과 같다.

조선어문법(형태론), 연변대학 중문학부 조선어강좌, 연변인민출판사 조선어문  
조, 1972, 연변인민출판사

조선어문법(문장론), 연변대학 중문학부 조선어강좌, 1974, 연변인민출판사

조선어문법, 최윤갑, 1980, 요녕인민출판사

조선어실용문법, 서영섭, 1981, 요녕인민출판사

조선어문법, 동북3성조선어문법편찬소조, 1983, 연변인민출판사

중학생조선어실용문법, 연변교육출판사 조문편집실, 1984, 연변교육출판사

현대조선어, 김진용, 1986, 연변교육출판사

현대조선어, 강은국, 1987, 연변대학출판사

조선말구두어문법, 최명식, 1988, 요녕민족출판사

조선어문법이론, 이규배, 1989, 연변인민출판사

이 문법서들 가운데서 조선어문법(1972), 조선어문법(1974), 현대조선어(1984), 현대  
조선어(1987)는 교재로 편찬한 것이고 조선어문법(1980), 조선어실용문법(1981), 조선  
말구두어문법(1988), 조선어문법이론(1989) 등은 이론문법 또는 실용문법으로 편찬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어문법(1983)은 중국에서 우리 말 규범문법으로 편찬한 것이고 중학생 조선어실용문법(1984)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편찬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어문법(1983)과 중학생조선어실용문법(1984)은 중국의 현행 문법서 가운데서 규범성을 띤 문법서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이 두 문법서를 대상으로 하여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의 표준어 악센트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어문법(1983)에서는 국어표준어의 악센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어에는 장단, 고저, 강약의 세 가지 역점이 다 있으나 장단역점 외에는 그리 현저하지 못하다. 그것은 장단역점 외에는 단어와 단어를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 1.1. 장단역점

장단역점은 일정한 단어에만 오는데 이음절 이상의 단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음절에 온다.

긴소리	짧은소리
눈(雪)	눈(眼)
밤(粟)	밤(夜)

부사, 관형사, 일부 형용사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긴소리가 온다.

#### 1) 부사에서

고이, 높이, 멀리, 널리, 조용히, 지긋이, 사랑히, 탕탕, 땡땡, 웅웅, 쟁쟁, 벌떡벌떡, 꿀꺽꿀꺽, 뿔그렁뿔그렁

#### 2) 관형사

은갓, 모든, 긴긴, 한낱, 별별

#### 3) 형용사에서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 다른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는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가?

명하다, 땡하다, 그득하다, 시원하다

## 1.2. 고저역점

조선어에서 높은소리가 오는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다. 단음절어는 단어에 따라 오며 이음절어는 앞 또는 뒤의 음절에 오고 삼음절어는 첫음절 또는 중간음절에 오는데 보통 중간음절에 많이 온다.

### 1) 단음절어에서

말(馬), 집, 산(山), 앞, 금(金)

### 2) 이음절어에서

아들, 나라, 길이, 뛰다, 다락, 가을, 나무

### 3) 삼음절어에서

오래비, 아구리, 바치다, 도라지, 나서다, 부르다

조선어에서 소리의 길고 짧음과 높고 낮음의 관계를 본다면 대체로 긴소리는 낮고 짧은소리는 높다.

길고 낮은 소리

돌(石), 벌(蜂), 돌다, 불다

짧고 높은 소리

나리, 말(馬), 불(火), 버르다(무엇을 하려고)

이상과 같은 일반적 규칙이 있는 외에 긴소리와 높은 소리가 함께 오는 경우도 있다.

개미, 뱀, 뱀, 끌다, 설다, 슬머시, 거꾸로, 바드득바드득

이것은 높은소리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과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다.

### 1.3. 강약역점

조선어에서의 센소리는 일반적으로 자립적 단어의 첫음절에 온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들을 창조하고 있다

중학생조선어실용문법(1984)에서의 국어표준어의 악센트에 대한 서술을 보면 어음의 장단과 강약에 대한 서술은 조선어문법(1983)과 대체로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어음의 고저에 대한 서술은 다르다.

중학생조선어실용문법(1984)에서는 국어표준어의 고저악센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고저역점

하나의 음절로 된 어근(말뿌리)의 뒤에 토가 붙으면 그 어근은 높은소리이다.

례: 집에, 날다, 먹어, 잡으면

두개의 음절로 된 단어의 경우에는 보통 첫음절에 높은 소리가 온다.

례: 조국, 나라, 학교, 노래

세 개의 음절로 된 단어의 경우에는 보통 가운데음절에 높은소리가 온다.

례: 혁명화, 나라일, 학교문, 붉은기

네 개의 음절로 된 단어에서는 보통 세번째 음절에 높은소리가 온다.

례: 해바라기, 버드나무, 믿음직한, 조국통일, 창조하다

네 개이상의 음절로 된 단어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부터 두번째 음절에 높은 소리가 온다.

례:항일유격대, 현대화건설, 공급판매 합작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어문법(1983)에서는 국어의 고저악센트를 자유악센트라고 서술을 하였고 중학생조선어실용문법(1984)에서는 국어의 고저악센트를 고정악센트라고 서술을 하였다.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의 국어악센트에 대한 서술은 중국의 현행 문법서들 사이에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 조선이나 한국에서 서술하고 있는 국어표준어의 악센트와도 다르다. 조선에서의 국어악센트에 대한 서술은 아래에서 들어 보이겠지만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 다른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는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가?

한국에서는 국어표준어의 악센트를 다름에 있어서 어음의 장단만이 변별적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어음의 장단만을 음운론적 서술대상으로 삼고 있다.

## 2.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 국어표준어의 악센트를 이렇게 서술하게 된 근거

그러면 중국의 현행 국어문법서에서 표준어의 악센트를 어디에 근거하여 이렇게 서술하였는가, 이 문제의 답은 8.15해방 후 조선의 국어문법서들에서 악센트를 서술한 역사를 더듬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조선의 문법서들에서 국어악센트를 어떻게 서술하였는가를 문법서가 씌어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보기로 하겠다.

박상준의 조선어문법(1948)에서는 국어악센트를 서술함에 있어서 어음의 장단만을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 서술하였다.

말(語)과 말(馬), 발(簾)과 발(足), 벌(蜂)과 벌(罰), 밤(粟)과 밤(夜), 배(腹, 船)와 배(梨), 의사(意思)와 의사(醫師), 되다(量)와 되다(成)들과 같이 말의 소리에겐 장단이 다름이 많은데 이를 틀리게 하면 말의 뜻을 잘 알 수 없게 된다.

소리의 장단은 모음의 발음을 길게 하고 짧게 함인데 두 음절 이상으로 된 단어는 대개 그 첫음절의 장단만 바르게 하면 그 다음 음절의 장단은 약간 틀려도 무방하다(53페이지).

조선어문연구회에서 편찬한 조선어문법(1949)에서는 국어의 악센트를 서술함에 있어서 어음의 고저와 장단을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 서술하였다.

조선어의 악센트는 고저악센트로 볼 수 있으며 음절사이의 고저관계가 우심하지는 않으나 고저의 달라짐에 따라 語의 의미도 달라지는 예가 있다.

高      갈-(벼슬을 갈다)

中      갈-(갈을 갈다)

低      갈-(발을 갈다)

高      달-(맛이 달다)

中 달-(기를 달다)

低 달-(몸이 달다)

高 말(말을 타다)

中 말(말로 되다)

低 말(말을 잘하다)

이 三段(高, 中, 低)의 악센트의 차이는 특히 경상도 지방에서 명확하고 경기 지방에서는 보통 高와 中의 차이가 명백하지 않아 고저의 二段밖에는 구별하지 않는다.

장단은 주로 모음에 나타나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長	短
말(言)	말(斗)
벌(蜂)	벌(罰)
밤(栗)	밤(夜)

음의 고저와 장단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높은 음이 짧고 낮은 음이 길다 (43~46페이지).

김수경의 조선어문법(1954)에서도 어음의 고저와 장단을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 서술하였다.

“조선어에 있어 동일한 음절이면서 그의 높고 낮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동일한 음절로부터 이루어져 있으나 그 사이에 고저의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이 단어들의 의미까지도 달라지게 하고 있다.”

맛이 달다	몸이 달다
말을 탄다	말을 잘한다
(높은소리)	(낮은소리)

조선어에 있어 동일한 음절이면서도 그의 길고 짧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동일한 음절로부터 이루어져 있으나 그 사이에 장단의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이 단어들의 의미까지도 달라지게 하고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 다룬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는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가?

있다.

발을 걸어라	벌을 친다	밤을 판다(긴소리)
발을 씻어라	벌을 받는다	밤을 새운다(짧은소리)

음절사이에 고저와 장단의 차이가 있는 것은 주로 그 음절에 있는 모음의 고저와 장단에 의한다.

어음의 고저와 장단의 관계를 본다면 대체로 높은 소리가 짧고 낮은 소리가 길다(28~29페이지).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언어학연구실에서 편찬한 **조선어문법(1960)**에서는 국어어음의 고저와 장단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단어악센트

조선어의 단어악센트는 단어중의 어떤 음절이 다른 음절보다 소리가 높거나 낮거나에 따라 구별되는 고저악센트(음악적 악센트)이다. 조선어 악센트의 고저관계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매개 단어마다 그 속에 있는 음절이 다 높고 낮은 것으로 구별된다. 예를 들면 조선어의 단어악센트는 그것이 오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첫음절에 오기도 하고 혹은 가운데 음절, 끝음절 등에 오기도 하여 일정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첫음절에 오는 것: 나무, 처음, 거울, 기름, 착하다

가운데 음절에 오는 것: 아버지, 어머니, 백두산, 압록강, 반갑다

끝음절에 오는 것: 소리, 나라, 머리, 여덟

#### 어음의 장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어의 악센트는 고저에 의하여 표현되는데 이 어음의 고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어음의 장단관계가 있다. 어음의 장단은 모음이나 자음 어느 것에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모음의 장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선어에는 모음에 이와 같은 장단의 차이가 있다.

사:람, 일:, 밀:, 울다

조선어에서 모음의 이와 같은 장단의 차이는 단어의 의미를 분별시켜주는

일이 있다.

밤(栗): 밤(夜)

말(語): 말(馬)

조선어에서는 긴 음은 낮고 짧은 음은 높은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42~43페이지).

조선문화어문법규범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에서는 국어표준어의 악센트를 서술함에 있어서 어음의 고저, 장단뿐만 아니라 강약도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 서술하였다.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에서는 “우리 말의 소리마루에는 높이마루와 길이마루가 있고 세기마루는 새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높이마루는 단어를 이루는 소리마디의 수에 따라 대체로 고정된 위치에 나타난다.”고 하였고 “길이마루는 일정한 단어의 일정한 소리마디에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세기마루는 단어의 첫마디에 나타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조선어강좌에서 편찬한 어음 및 문자론(1989)에서는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높이마루

높이마루는 단어 안의 소리마디 수에 따라 고정된 위치에 나타난다. 2개의 소리마디로 된 단어에는 높이마루가 붙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3개의 소리마디로 된 단어에는 보통 가운데 마디에 높이마루가 온다. 4개 또는 그 이상의 소리마디로 이루어진 단어에는 흔히 마지막 두번째 마디에 높이마루가 온다.

천리마, 튼튼히, 싸워서, 사회주의건설, 사랑스러워

### 길이마루

길이마루는 형태부를 따라 고정되어 있으며 흔히 말뿌리에 붙는다. 길이마루는 단어의 첫소리마디에 온다. 특히 한 개의 마디로 된 단어에 길이마루가 붙어 소리는 같고 뜻이 다른 말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말(언어) 말(짐승)

굴(굴간) 굴(바다의)

눈(내리는)      눈(사람의)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 다른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는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가?

대비약, 총진군, 알다, 일다, 길다

세기마루

세기마루는 흔히 단어의 첫째 마디에 온다. 단어의 첫째 마디를 지나치게 세게 발음하는 것은 문화어의 옳은 발음이 아니다. 일부 동해안지방들에서 단어의 앞을 지나치게 세게 발음하고 있는 것은 사투리 발음이다.

속도전

세차게 전진하다

태양의 품을 찾아온다(36~38페이지)

위에서 보았지만 조선에서의 국어악센트에 대한 서술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1949년 이전 시기는 국어의 악센트를 서술함에 있어서 어음의 장단만을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 서술한 시기이고 1949년부터 1970년대 이전 시기는 국어의 악센트를 서술함에 있어서 어음의 고저와 장단을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 서술한 시기이며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는 국어의 악센트를 서술함에 있어서 어음의 고저, 장단뿐만 아니라 어음의 강약까지도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 서술한 시기이다.

특히 어음의 고저에 대한 서술에서 보면 1949년부터 1970년대 이전 시기에는 국어의 고저악센트를 자유악센트로 서술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국어의 고저악센트를 고정악센트로 서술하고 있다.

이제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의 국어 악센트에 대한 서술을 돌이켜 보면 조선어문법(1983)에서의 국어 악센트에 대한 서술은(특히 고저악센트에 대한서술은) 1970년대 이전 조선의 문법서에서의 국어 악센트에 대한 서술과 비슷한 점이 있고 중학생조선어실용문법(1984)에서의 국어 악센트에 대한 서술은 1970년대 이후 조선의 문법서에서의 국어 악센트에 대한 서술과 비슷한 점이 있다.

즉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의 국어 악센트에 대한 서술은 주로 조선의 문법서에서의 국어 악센트에 대한 서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 서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를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서술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에서는 “현대 중국어의 표준어는 북경어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말을 기초방언으로 하며 전형적인 현대 백화문(白話文)저작을 어법규범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중국에서는 표준어를 정함에 있어서 세 가지 표준을 정하였다.

- 어음표준-북경어음(北京語音)
- 어휘표준-북방말(北方方言)
- 어법표준-백화문어법(白話文)

중국에서는 이 표준어의 기준을 가지고 중국어(漢語)의 언어생활을 규범해 나아가고 있으며 또 이것을 나라의 대표적인 언어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남북분단과 함께 언어에서도 두 가지 표준어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선에서는 ‘표준어’라는 술어 대신 ‘문화어’라는 술어를 쓰고 있으며 “문화어는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주체적으로 발전한 아름다운 언어로서 조선민족어의 전형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을 다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표준어규정조건	한국	조선
시대적 조건	현대	(현대)
사회계층적 조건	교양있는사람	(노동계급)
지역적 조건	서울말(서울)	평양말(평양)

보다시피 우리 말에는 서울말에 바탕을 둔 표준어가 있고 평양말에 바탕을 둔 문화어가 있다.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의 악센트에 대한 서술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표준어 기준의 영향하에서 초래한 것이다.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 어음의 장단을 서술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방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표준어의 장단을 서술한 것이고 음절수에 따라 고저가 없이는 위치가 결정되는 어음의 고저를 서술한 것은 평양말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문화어의 고저를 서술한 것이다.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 이와 같이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를 서술하는 것은 검토해 볼 문제이다.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 다른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는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가?

둘째, 국어 음운론의 서술대상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의 현행 국어문법서에서는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를 서술함에 있어서 음운론적 대상과 비음운론적 대상을 구별없이 함께 서술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방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표준어의 악센트를 서술할 경우에는 어음의 장단만이 서술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는 어음의 장단뿐만 아니라 어음의 고저, 어음의 강약까지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

이런 관계로 중국의 현행 문법서에서의 악센트에 대한 서술은 한국에서의 악센트에 대한 서술과 다르게 된다.

#### 4.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에 대한 서술에서 취해야 할 자세

지금 우리 말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가 있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가 있다.

국어에서의 이 두 가지 표준은 중국의 국어학자들에게 이론적, 실천적으로 풀어 나아가야 할 문제를 주고 있다.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에 대한 서술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기준하여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를 서술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서게 된다.

중국에서의 국어규범화는 이제까지 특정된 역사적 배경 하에서 주로 한쪽에 기우는 방침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완전히 한쪽에 기운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려운 것이었다. 이것은 일정한 역사적 시기의 산물로서 앞으로도 계속 고집해야 할 방침은 아니다.

필자는 중국의 국어학자들은 국어표준어의 악센트를 다룰 경우 우선 국어에는 하나의 표준어가 있다는 입장에서 표준어의 악센트를 다루어야 하며 다음은 서울표준과 평양표준을 뒤섞어서 서술하는 태도를 삼가야 하며 그 다음은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를 다룰 경우 음운론적 서술대상과 비음운론적 서술대상을 구별하여 서술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의 견해로서는 이것이 국어 표준어의 악센트에 대한 서술에서 취해야 할 자세이다.

## <미주>

1. 지금 국어학계에는 ‘악센트’에 ‘강약’과 ‘고저’만 포함시키고 ‘장단’은 제외하는 견해가 있으나 필자는 이 글에서 ‘악센트’에 ‘강약’, ‘고저’, ‘장단’을 모두 포함시키는 견해를 취한다.
2. 연변대학에서는 1950년대 중기부터 자체로 편찬한 국어문법교재를 사용하였으나 이 교재들은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학의 교재로 찍어낸 것이다.
3. 이 문법서를 비롯한 일부 문법서들에서는 ‘조선어문법’이라는 이름 밑에 어음론도 취급하고 있다.
4. 新國語學(金敏洙), 1989, 一潮閣 ; 한국어음운개설(황희영), 1986, 二友出版社 ; 國語音韻論, 1982, 正音社 참고
5. 現代漢語詞典(제2판), 商務印書館, 1985, 890페이지 참고
6. 한글 맞춤법 표준어 해설, 1988, 대제각, 173페이지 참고
7.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1981,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007페이지 참고
8. 여기에서 말하는 ‘음운’이란 중국어에서의 ‘音位’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학자들이 말하는 ‘音素’에 해당하는 것이다.
9. 1963년 6월 28일 중국의 총리 주은래가 우리 말의 표준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朝鮮文有三種標準，平壤，漢城，延邊，平壤標準應作爲典型的標準，因爲我們朝鮮同志朝鮮人民都懂，應該按照這個標準來說話，寫文章。